

독도 지킴이 김장훈 “본적 독도로 옮겨”



“독도 지킴이”로 활동 중인 가수 김장훈이 본적을 독도로 옮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장훈은 지난 26일 “지난 4월 해외 활동에 매진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경북 울릉군 울릉읍사무소를 통해 본적을 독도로 옮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본적을 옮긴 건 해외에 있으면서도 독도를 늘 가슴에 새기기 위해 든든한 영혼의 보충을 든 것”이라며 “또 미국에서도 독도 알리기에 힘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해외에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음 속으로 (한국에) 현 주소는 없어도 본적은 독도라고 생각하면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에서 독도 관련 모임을 지원하는 등 한국과 독도 알리기에 힘써왔다. 올가을에는 뉴욕의 10개 대학교 학생회와 연합해 대규모 한국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장훈은 “10개 대학교의 교포와 유학생들이 연합해 페스티벌을 꾸릴 계획”이라며 “이러한 행사를 통해 독도가 영토가 아닌 문화로 자연스럽게 인식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LA와 뉴욕 공연을 마친 그는 오는 8월 3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릴 경기도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 콘서트 참가자를 맡아 최근 일시 귀국했다. /연합뉴스

순천 매산여고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강연



순천 매산 여고(교장 장영순)는 지난 26일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피터 그린버그(독일·사진 오른쪽)를 초청 강연회에 조훈훈 시장 등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등 1000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는 ‘르나사육 육성 프로그램’으로 3차 노벨수상자의 강연에서 ‘거대자기저항 발견’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피터 그린버그는 지난 2007년 프랑스 물리학자 알버트 페트와 공동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으며, 2001년 광주과학기술원 해외초청교수, 2012년 광주과학기술원 그린베르크 지식나노소재 연구센터장을 역임하고 있다. /순천=예정기자 yjy@kwangju.co.kr

동구자원봉사센터 ‘장애아동 희망나들이’



동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구제길)는 27일 이마트 동광점(점장 유준철) 후원을 받아 행복재활원 장애아동 등 18명과 ‘장애아동 희망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동구자원봉사센터 지공)

‘도청앞 회화나무 모임’ 이경희 대표

“5·18 등 광주 근현대사 산증인 소공원 만들어 이야기 전했으면”

조선후기, 광주는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며 광주읍성 남문 안에 회화나무를 심었다. 일제 강점기, 일제는 조선의 사적을 지우고 광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읍성을 파괴하면서, 읍성 안에서 자라고 있던 이 나무들을 베어버렸다. 하지만 옛 전남도청 앞 회화나무는 곳곳이 살아남아 해방과 5·18 광주민중항쟁 등 20여 년 동안 광주의 근현대사를 지켜왔다.



옛 전남도청 앞 회화나무는 광주 시민들에게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역사의 증인’으로써 그 의미를 더하는 나무였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태풍 불라벤에 쓰러진 뒤 1년여 동안의 회생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고사하면서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그리고 나무 한 그루를 위해 시민과 단체가 자발적으로 모여 모임을 결성했다. ‘도청 앞 회화나무모임’(이하 회화나무모임) 이경희(여·38·광주 푸른길 가꾸기 운동본부 사무국장) 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과 5·18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역사에 곡이 자멸된 지난 5월 옛 전남도청 앞 회화나무가 있을 피워내지 못하고 고사한 것을 안타깝게 여긴 광주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모임을 결성하게 됐다”며 “회화나무를 현장에 보존하고 그 주변을 생태 소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화나무모임은 지난 14일 ‘죽어서도 살아’ 주제로 문화제를 열어 죽은 나무를 위한 의례를 지낸 뒤 회화나무 영상을 상영했다. 이후 시민토론회와 SNS 등을 통해 회화나무 보존 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았

다. 이 과정에서 한 시민이 옛 전남도청 회화나무 옆에서 회화나무 어린싹을 발견해 키우고 있는 후계목을 찾아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옛 전남도청 주변 개발, 금남로지하도가 및 지하철 공사에 이어 최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공사 등으로 회화나무의 성장을 막은 것은 우리”라며 “회화나무를 없애는 것은 5·18에 대한 기억들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화나무를 방부처리에 현장에 보존하고, 인근에 후계목을 심어야 한다”고 밝혔다. 회화나무모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시민제안서를 지난 26일 광주시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옛 전남도청 앞 ‘민주평화광장’ 조성사업을 변경해 주변을 녹지화

하고, 회화나무 소공원을 조성하자는 내용과 광주시가 옛 전남도청 일대 수목에 대한 생육 진단 및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민주평화광장 바다를 박석으로 교체하면 인근 은행나무 등 다른 수목 생육에도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모임을 중심으로 회화나무 소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민주평화광장 조성사업 설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계획”이라며 “소공원이 조성되면 고사한 회화나무와 후계목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텔링 안내판을 설치해 문화전당과 5·18 사적 탐방객들에게 광주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목포 꿈의 오케스트라 ‘결실’

김우진군·송예령양 노남예술제 등 콩쿠르 다수 입상

엘 시스템아 지원사업인 ‘꿈의 오케스트라-목포’ 단원이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 화제다. 특히 ‘꿈의 오케스트라-목포’가 창립된 지 1년도 안돼 교육 감사진과 학생들이 함께 일컫는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제의 주인공은 제58회 노남예술제 현악 부문에서 더블베이스 금상을 수상한 김우진(목포대성초 6)군. 김 군이 첫 참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엘 시스템아 지원사업인 ‘꿈의 오케스트라-목포’에서 더블베이스 악기를 지난 해 8월 처음으로 접한 뒤 권재봉(31) 교육 감사와 한마음이 되어 꾸준한 노력해온 결과로 풀이된다. 게다가 권 감사는 3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악기를 사비를 들여 구입해 김 군에게 연습할 수 있도록 대여해 줘 이번 수상의 의미가 남다르다.

김우진 학생은 “처음 참가한 대회에서 금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대회 당일 선생님이 들려준 더블베이스 악기를 제 실수로 부러뜨려 긴장했지만 상을 타게 돼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또 김 군은 “앞으로도 계속 더블베이스를 전공해 선생님께서 러시야로 유학도 가고 훌륭한 연주가가 돼서 목포에서 저와 같은 학생들이 위해 도움을 주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권재봉 감사는 “노남예술제에서 더블베이스라는 악기로 수상한 것은 아마도 처음 있는 일인 걸로 알고 있다”면서 “지난 해 8월 우진이 더블베이스라는 악기를 처음 접한 뒤 1년도 되지 않아 이렇듯 큰 상을 수상하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우진 군 외에도 송예령(광주교대목포부설 5)양이 노남예술제에서 바이올린 부



문 동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목포대학교 제6회 전국 음악 콩쿠르 대회에서 다수의 단원이 입상의 영광을 안는 등 ‘꿈의 오케스트라-목포’ 단원들이 1년도 안 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kwangju.co.kr

‘신창원 검거’ 김진희 총경 은퇴

광주·전남 총경·경정 4명 퇴임식



김진희 총경, 류복열 총경, 박원출 경정, 탈옥수 신창원 검거 작전을 지휘했던 김진희(60)총경 등이 화려한 수사경력을 뒤로하고 경찰에서 은퇴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오는 30일자로 김진희 총경과 송양화(60) 총경이 정년 퇴임한다고 밝혔다. 퇴임식은 28일, 전남지방경찰청도 27일 류복열(60) 총경과 박원출(56) 경정에 대한 정년 퇴임식을 가졌다. 김진희 총경은 지난 1976년 경찰에 입문, 37년 경찰생활을 정리하고 정년 퇴임을 맞았다. 김 총경의 경찰 이력에서 신창원을 빼놓을 수 없다. 김 총경은 순천경찰서 수사과장(경정)으로 있던 지난 1999년 7월 16일 회대의 탈옥수 신창원 검거를 위해 그가 머물던 아파트 2층 앞뒤 배란다, 앞마당 화단, 아파트 정·후문에 형사·타격대 등을 배치하고 현장을 지휘했다. 김 총경은 당시 “신(창원)이 도망가면 내가 먼저 총을 겨누는데 총성이 울리면 누구든지 다리를 향해 총을 쏘라”는 사격 지침까지 내리고 형사들의 움직임을 지시했다. 아파트 뒷배란다 유리창으로 진입한 형사들이 신창원을 포박해 부상으로 압송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김 총경의 지휘로 이뤄졌다. 김 총경은 지휘관 근무 기간을 빼면 재직 기간의 절반 이상을 수사 계통에서 근무하는 등 ‘현장 경찰관’이었다. 지방청 수사 2계장이었던 지난 2004년에는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수능 부정사건 수사를 총괄해 지휘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했다. 김 총경은 “큰 과오 없이 정년을 채우게 된 것도 선후배, 동료 덕분”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인사

- ◆나주시
◇지방행정 4급 승진 ▲김근용 행정지원과
◇지방행정 5급 승진 ▲윤영수 비서실장 ▲김석재 공산면장 ▲곽상성 산포면장 ▲염인준 종합민원과 ▲김복준 정책기획실 ▲곽종진 재난관리과
◇지방행정 5급 승진교유 대상자 ▲나상인 정책기획실 ▲김경윤 감사실 ▲김권영 행정지원과 ▲신연호 주민복지과 ▲정영호 도시재생과
◆곡성군
◇4급 승진 ▲이왕근 기획실장 ▲이금도 복지과장
◇5급 승진 ▲양홍석 관광과장
◇5급 전보 ▲심종선 행정과장 ▲문용수 환경과장 ▲김인표 옥과면장 ▲안태영 곡성읍장 ▲허재홍 민원실장 직무대리
◆신안군
◇지방 서기관 승진 ▲김윤주 행정지원실장 ▲박근보 기획홍보실장
◇사무관 승진 의결 ▲이정수 행정지원실 비서실장 ▲박영철 환경공원과 공민복지담당
◆해남군
◇서기관 승진 ▲김홍수 주민복지과장
◇사무관 승진 ▲강만석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성배 송지면장 ▲박주하 삼산면장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대상자 ▲김태수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사무관 전보 ▲박주신 종합민원과장 ▲정진배 행정지원과장 ▲조준봉 세무회계과장 ▲민성배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채성기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상국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영욱 현산면장 ▲홍성민 북일면장 ▲민경성 마산면장 ▲김성호 건설방재과장 ▲안준승 축산진흥사업소장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김기평·김영예씨 장남 용균(삼성화재)군 장형래(TBN 한국교통방송 광주본부 전 편성제작국장)·오정숙씨 차녀 여원(KT)양=29일(토) 오전 11시 S타워 웨딩컨벤션 3층 메리골드홀.
▲권오을(울산·개인사업)씨 차남 혁헌(울산경찰서 근무)군 이병영(광일전대 조정)·김선희(웰티사업)씨 장녀 소미(울산 경찰서 근무)양=30일(일) 오후 1시 광주 올리데인 호텔 3층 로즈홀.
▲심종식(전 무등일보 지역사회부 국장)·박의숙씨 장남 상훈(한의사)군 박길수·최필계씨 장녀 아름(한의사)양=30일(일) 오후 2시 부산 해운대구 팔레드시즈 노블레스홀.

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중친회
▲능성구씨 광주전남총회(회장 구연수) 6월 월례회 및 आय회=29일(토) 신안군 임자면 임자도 062-381-0019, 010-8010-1777.
▲광산이씨 필문회(회장 이태교) 월례회 및 교양강좌=7월 4일(목) 오후 6시 30분 대명가든(금남로 5가 신한은행 뒤) 062-525-2708.
향우회
▲재광나주 향우회 제22차 정기총회(회장 나도팔) 겸 나주인 모두의 만남의 장=29일(토) 오후 4시 광주 알렌시아웨딩홀 062-227-8880.

이 1366. 휴대전화 사용시 062-1366.
▲(사)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광주시부 서구지회(지회장 강철부) =2013년 6월 20일(목) 안보화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무료자선봉사는 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로 음향장비(엠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광주장애이인권센터 무료 상담 =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이인권센터연구소 062-369-0420 (1577-5364).
▲습관성도박(경마·주식·복권·인터넷도박·성인오락 등)자 및 가족 진문상담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병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프르네 학습증진센터실 저소득층 자녀 무료상담=학교부적응, 성적부진, 성격저하, 교육관계, 정서장애, 게임중독. 010-6392-7137.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모집
▲다음카페-잠된 나(?)찾기 학교 무료 교육=우울증, 불면증, 두통, 불안신리, 이명, 환청, 환상, 강박관념, 대인공포증, 가위눌림, 악몽, 자살충동, 신내림, 귀신들림, 정신질환, 신경성질환, 만성난치·금연금지, 약습·가족갈등, 비만·체질교정, 불생생사, 8고해탈, 진리체득, 학습력강화, 최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등 010-6609-9068.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광주광역시지부 특전사=예비역 및 회원 수시 모집 062-225-6500, 011-610-5575.
▲문해 한글과정 지원봉사 여고사·학생=성인한글 초급·중급·고급반, 중입검정고시반 등 월~금요일

오전 9~12시, 오후 2~4시. 062-951-5397.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광주물세 클럽 수영 동호회원=수영 무료로 지도해주며 30세 이상, 북구 거주자 환영 011-602-2278.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오카리나회원=매주 목요일 주 1회(3개월) 건강타운복지관 1층, 광주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062-603-8860~71.
▲세호크 레저스포츠클럽 동호회 회원=페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윈드서핑, 수상스키, 제트스키 등. 062-675-8722.
▲황실 십자수 무료 수강생=쿠션·시계·베개·주차중·방식·액자·지갑·핸드폰줄 제작 등 무료 교육 062-512-4000, 062-528-8500.
▲광주시 생활체육아우터연합회 사

회인 아우팀 ‘엑스칼리버’ 팀원은 아우구에 관심과 자질 있는 30세~40세의 사회인(특히 투수, 포수) 011-609-9943, 010-2611-7787.
부음
▲김말순씨 별세 정점주·문주·추자·순남씨 모친상=발인 29일(토)
▲최양심씨 별세 김민준(광주일보 무안주재기자)씨 모친상=발인 28일

(금) 무안병원 장례식장 5호실 061-453-0041.
▲범형님씨 별세 김성기(농협은행 상무지점장)·성권(기아자동차)·성욱(포스코 부장)·미라씨 모친상 황창현(광주교도소 계장)씨 빈모상=발인 28일(금) 광주 보훈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973-9163.
▲장매엽씨 별세 이영배·영삼·영욱(법무사)·춘자·맹순·맹진씨 모친상=발인 28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밧니다 弔
故김상운 님(남/89세)
子/子婦: 김상일/박희자, 상희
女/女婦: 김미라/최현민, 미화
故김영남 님(여/81세)
子: 최종규
孫: 최병현, 병남
故박준근 님(남/77세)
子: 김대원
女/女婦: 김연미/이동운, 선희/최득석, 은희/박금선, 숙희/김수남, 서영/김현석, 지옥/김진옥
孝 金호장례식장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